



우리의
家章

靑松沈氏宗報

發行人：會長 沈宜洛
編輯人：文化理事 沈載緒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 賣 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 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제6회 청송심씨 경친다짐대회 및 한동수 청송군수에 대한 감사패 증정

청송지역에 거주하는 우리종인(宗人)간에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위한 한마당 잔치인 제6회 청송심씨 경친(敬親)다짐대회가 지난 6월 18일 관향(貫鄉)인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경의재(景義齋)에서 개최되었다.

청송심씨청년회(회장 : 장섭) 주관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이날 행사에는 의락(宜洛) 대종회장을 비롯하여 한동수 청송군수, 덕보 청송경찰서장, (現) 정해걸, (前) 김재원 국회의원 등 지역의 주요인사와 대구, 안동 등 인근지역의 각 종회장과 종인 문객 출향 종인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는 1부 순서로 주요 내빈 소개,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 효행상 시상 그리고 90세이상 장수 어르신에 대한 축하 기념품 증정, 축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중식 후 2부 순서로 노래자랑과 축하공연 그리고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순서로 종친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찬경루와 운봉관을 중수 복원하고 이 일대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데 75억원의 거액을 투입하였고, 그 이름을 소헌공원(昭憲公園)으로 명명(命名)하여 우리 심문(沈門)의 위상제고(位相提高)에 크게 기여한 한동수 군수에게



한동수 청송군수께 감사패를 증정하는 대종회 宜洛회장

우리 22만 전 종인을 대표하여 의락 대종회 회장께서 감사패 전달과 500만원의 장학금을 청송군에 기탁하는 등 보람있고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안효공종회 2011년도 정기총회 개최

2011년 6월 6일(월) 음력 5월 5일 단오날 오전 10시에 안효공 할아버님의 묘전(墓前)에서 종인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묘년(辛卯年) 단오절사(端午節祀)를 봉행(奉行)하였으며, 11시 부터는 동(同) 묘역내의 재실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가 개최 되었다.

재실마당에는 천막으로 햇볕을 가리고 그 밑에는 400개의 의자를 배치한 가운데 외삼문 안쪽에 서있는 종인과 동재 서재의 뒷마

루까지 모두 꽉 들어찬 가운데 성왕리에 개최되었다.

상덕(相德)회장의 개회사와 재옥(載玉)총무이사의 2010년도 주요현안 및 제사업 추진경과 보고와 2011년도 사업계획보고서, 문수(文洙)감사의 회무감사보고에 이어 상홍(相弘) 재무이사의 전년도 결산보고와 2011년도 예산안 등을 보고한 후 참석한 전 종인(全宗人)에게 통과여부를 물은바 만장일치로 부의안건이 가

결되었다.

특히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주이씨 문중에서 숙옹심씨(淑翁沈氏) 둘째 왕자이신 영산군(寧山君)과 종회임원 4명과 이창훈 회장께서 축하 인사차 방문하였으며 전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신 재홍(載鴻) 지도위원께서도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축제분위기 속에서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정기총회 후 전달된 개인별로



안효공종회 2011년도 정기총회에서 相德회장의 개회사 장면

도시락과 기념품을 받아 들고 안효공 할아버님의 묘역내의 나무그늘 밑에서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안효공 할아버님의 음덕에 감사드리고 덕담을 나누며 안효공 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였다.

부산종회 제35차 정기총회 개최

부산종회 정기총회가 2011년 6월19일(日) 오전11시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부산지역 일가친척 가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대종회 의락(宜洛)회장, 상화(相和)상임부회장, 재서(載緒)문화이사께서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제35차 정기 총회를 개최한 부산종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종사(宗事)에 임원진의 열정과 종인들간의 우애도 대단하였다.

특히 상균(相均)회장의 훌륭한 리더십과 재정적 지원은 부산종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상균회장께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

이며 나 만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일가간에 우애를 다지고 조상님들의 송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후손으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당부의 인사말씀을 하였다. 그리고 대종회 의락회장께서 부산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신다는 축사와 함께 대종회에서 심문(沈門)의 인재육성 일환으로 장학재단 설립 계획의 말씀에 참석한 종인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오전 제1부 정기총회를 마치고 중식 후 제2부 가수 초청 공연의 시간에는 즐거운 여흥으로 일가간에 문목을 다지며 뜻 깊은 하루를 보냈다.

폐회를 하고 귀가할 때는 주최측에서 마련한 푸짐한 선물을 손

에 들고 다음의 총회를 기대하면서 헤어졌다.

◆부산종회 임원 명단

▶고문 : 의락(대종회 회장), 상기, 재덕, 일진, 차섭, 인보 ▶회장 : 상균 ▶자문 : 용보, 수보, 재덕, 술진 ▶부회장 : 만인, 경도, 상집, 재영, 명구, 상희, 수화 ▶감사 : 삼보, 호섭 ▶실무이사 : 총무 영민, 문화 상보, 재무 상택, 사무국장 철호 ▶운영이사 : 인택, 분량, 해진, 재철, 일, 상숙, 석보, 익현, 수윤, 수진, 재울 ▶당연직이사 : 감전종친회 타관, 반송종친회 상학, 시달친족회 재원, 용호종친회 현식, 화전문중회 천오, 청송회 용식, 공무원 종친회 태섭, 심우회 수보, 해심회 재부



부산 정기총회 시 임원진의 축배 장면
左로부터 세번째 대종회 宜洛회장, 네번째 부산종회 相均회장



左로부터 세번째 대종회 宜洛회장, 네번째 부산종회 相均회장

종보(宗報) 운영 활성화에 대한 협찬문(協贊文)

전국종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종보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종보 성금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종보는 1996년 2월 20일 창간호를 낸 이후 15년 동안 우리종중 소식지로서 꾸준한 발전을 해왔습니다.

현재 1회에 5,500부를 종인 여러분에게 배포하고 있는데 연중(年中) 6회 발행에 약 2,500만원이 소요되나 종보성금은 약 1,000만원 정도로 종보 자체 사업으로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회의 재정은 종인의 회비잔조금, 헌성금, 기본재산의 수익금으로 충당(정관제26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4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상당한 적자가 예상됩니다.

지난 5월 27일 회장단 회의에서 건전재정을 위

하여 구조조정의 건을 의결하고 현재 개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한다고 해도 지출 예산의 대부분이 제향비(祭享費), 문화재관리비, 종재보존비(宗財保存費) 등 경직화(硬直化) 되어 있어 조정 대상(調整對象)은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관리비를 축소·감액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전기(前記)한 바와 같이 종보사업의 적자를 해소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나 문제는 재원의 확보입니다. 신문과 같이 구독료를 받자, 또는 회원제로 하여 회비를 받자는 등 회장단 회의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독자 여러분의 성의여하(誠意如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종보 사업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협찬에 의한 성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은 신문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종인들은 반드시 종보를 읽어야 종중 전체의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금액 여하를 불문하고 종보 성금 대열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특히 각 파종회와 지역종회에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앞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재일본(在日本)청송심씨종회[(회장 : 동경소재 (주)명월관 사장 沈廣燮)]에서도 종보 송부를 바라고 있어 양적증간(量的增刊)도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찬을 간청하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1년 7월 20일

大宗會長 沈宜洛 拜

讚慶樓 重修記(찬경루 중수기)

찬경루는 世宗 10년(1428년) 知靑松郡事 하담(河澗)이 왕가의 명을 받들어 1동 16칸을 창건하였으니 世宗妃 소헌왕후(昭憲王后)의 王子 八大君께서 외시조(外始祖)를 위하여 지은 제각(祭閣)이다. 위치인 즉, 청송부의 근방인 운봉관(雲鳳館)에서 수십보 앞 용전천(龍纏川) 변 자연으로 생긴 취석암반(翠石巖盤) 위에 세워 졌으니 청송심씨 시조 고려 문림랑 위위시승(文林郎 衛尉寺丞) 청기군(靑己君) 홍부(洪孚)의 제각이다.

문림랑 공의 묘소는 청송부의 서남 5리의 보광산(普光山) 술룡신좌원(戌龍辛坐原)이며 사시(四時) 제향을 관향(官享)으로 함으로 제사 날 우천으로 용전천이 범람(汎濫)하면 이 제각에서 향사토록 하고 또한 묘전에서 우설(雨雪)을 만나면 산하(山下)의 만세루(萬歲樓)에서 행사토록 하였다.

소헌·인순(昭憲·仁順) 양 성모(兩 聖母)께서 중사(中使)를 보내어 보광산에 송백(松栢)을 심게 하고 위답을 하사(下賜)토

록 하여 四時 제향을 행하게 하였다. 2층 루벽(樓壁)에는 송백강릉(松栢岡陵)이란 안평대군(安平大君)의 친필 현판(懸板)이 걸려 있고 웅장한 루각(樓閣)은 하늘로 날아갈 듯 하며 용마루와 대들보의 붉은 서까래에 밝은 빛이 찬연(燦然)하니 진실로 성모의 곤덕(坤德)이 이에 이름이로다. 보광산의 송백이 울울창창(鬱鬱蒼蒼)하니 청송심씨 후손들의 번성(繁盛)도 이와 같이 영세무궁(永世無窮)토록 면면불체(綿綿不替)하리라.

그로부터 360여년 후 청송부에 대화재로 찬경루가 소실되어 당시 청송부사 한광근(韓光近)이 심력을 다하여 1792년(壬子年)에 중건개관(重建改觀)이 되었고 송백강릉의 현판은 청주 한철유(淸州 韓喆裕) 지필(之筆)로 개서(改書) 하였다.

중건 후 누차 중수로 개관되어 왔으나 2002년 졸연(卒然) 樓의 대량(大樑)이 퇴후대손(頹朽大損) 되어 청송의 귀중한 유형

문화재인 찬경루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음이라. 이에 한동수(韓東洙) 군수는 즉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유교 문화권 사업으로 중수·복원을 추진하여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총 사업비 4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창건시 본 모습으로 웅대(雄大)하게 복원(復元)하였으니 이 위대한 업적은 청사(靑史)에 樓와 함께 빛나리라. 月前 하

순에 청송군 담당 직원이 안동까지 나를 찾아와 기문(記文)을 청하면서 청송읍의 루(樓)와 관(館)으로 引導하거늘 나는 식견(識見)이 없어 고사(固辭)를 하였으나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樓의 연혁(沿革)으로 잡아 左右 경관을 살피고 右와 같이 기록하다.

西紀 2011年 辛卯

殷中 完山 柳建基 謹識



6월 18일 청송심씨 경친다짐대회 참가 전에 소헌공원 찬경루에서 (왼쪽 宜七 (주)원일사 사장, 가운데 宜洛 회장, 오른쪽 相和 부회장)

대동세보(경진보)와 수권속편 할인 보급안내



구분	현재가격	할인가격	신청부수
대동세보 경진보 1질	220,000원	150,000원	()질
대동세보 수권 1권	40,000원	20,000원	()권
수권 속편 1질	100,000원	50,000원	()질
수권속편	수권속편 1권	50,000원	()권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1권	30,000원	20,000원
	종보축쇄판 1권	20,000원	10,000원
	제향홀기(휴대용)	3,000원	3,000원
1질	종사수첩(휴대용)	3,000원	3,000원
	뱃지 1개	1,000원	1,000원

대중회에서 발간한 大同世譜(庚辰譜)와 首卷續編을 대폭할인 하여 보급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매하고자 하오니 一家 여러분께 널리 알려주시고 이 기회에 1질씩 모시기 바랍니다.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파명	이름	집전화	핸드폰
주소		우편번호	
송금일자	송금인	금액	송금은행
()은행 ()지점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 청송심씨대중회
TEL: (02)2267-7857, 2263-7897 FAX: (02)2269-7755
*송금구좌 농협 084-01-193626(청송심씨대중회)

재일본종회(在日本宗會)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2011년 5월 대종회 사대(4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의락(宜洛)회장께서는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이었던 70~80년대에 우리 대종회 발전을 위해,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셨던 재일본 종인들을 찾던 중 대종회 지원 당시 40대의 약관(弱冠)이었던 광섭(廣燮) 종인을 어렵게 찾게 되었다. 광섭 종인은 지금은 76세가 되었고, 일본사회에서 크게 성공하여 동경 중심가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제일 큰 한식당 「명월관」을 경영하고 있으며 재일본청송심씨종회 회장직도 맡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락(宜洛)회장은 70년대 재일본종회에서 우리 대종회를 지원해 주었던 일들을 회상(回想)하면서 전화상으로 그 당시의 종인들 한사람 한사람 안부를 광섭회장(廣燮會長)께 문의한 결과 거의가 별세(別世)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동안 고국(故國)의 대종회에서 무관심(無關心)하게 지내온 것에 대한 자책(自責)을 하면서 광섭회장에게 앞으로 대종회와 서로 교류하면서 심문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 이후 의락회장께서는 대종회에서 발간되고 있는 심문의 소식지 「청송심씨종보」 50부와 족보5권을 광섭회장께 송부했고 광섭회장은 받은것을 연락이 되는 종인들에게 배포한바 종인들은 앞으로 계속 종보를 구독하겠다는 의사를 광섭회장께 알려왔다. 대종회에서는 앞으로 재일본종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종보를 보내기로 하였다. 광섭회장(廣燮會長)께서는 금년 가을



在日本靑松沈氏宗會 結成大會(1976年 5월 17日)에 참석한 宗人 기념촬영 / 京都 PARK HOTEL

재일본청송심씨종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 대종회에서도 참가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대종회를 반석(盤石)위에 세우신 대종회 초대 성택(聖澤)회장(1971. 5. 30 ~ 1979. 11. 8)님께서 청송보창간사(靑松報創刊辭)(1971년 7월 28일) 말미(末尾)에 1545년 좌의정(左議政) 통원(通源) 선대조(先代祖)께서 을사보서문(乙巳譜序文)에서 말씀하신

“如木之根厚而技茂(여목지근후이기무)
如水之源深而流長(여수지원심이류장)”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고 두터우면 가지가 무성하고 물의 근원이 깊으면 마르지 않고 언제나 흐른다」로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심문(沈門)은 시조(始祖) 문림랑(文林郎)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별과같이 자손이 번창 하고 자손의 재능이 뛰어나고 행의(行誼)가 아름다워 우리 조상님이 남기신 빛나는 풍토와 은택(恩澤)이 영원토록 계속 이어짐을 염원」하신 표현이라 생각한다.

우리 심문(沈門)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시조님의 DNA를 물려 받은 한 핏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만나면 우선 향렬(行列)을 묻고 조카 아저씨 대부로 호칭하는 한 일가(一家)인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 1970년대 종회활동이 활발했던 그때의 열정(熱情)으로 다시 문중활동(門中活動)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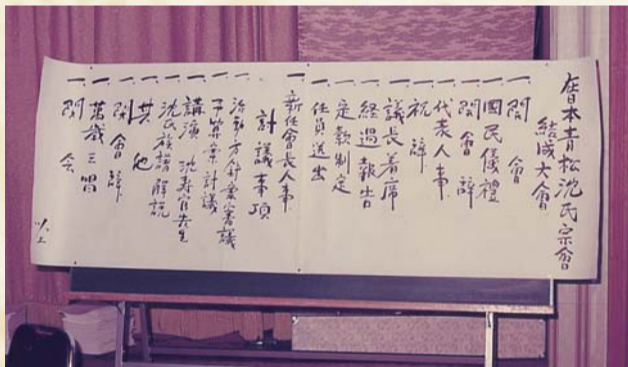
우리 대종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일본종회와 협력하고, 1970년대의 돈독했던 유대관계를 다시 복원 할 것이며 이러한 계획들이 성공 할 수 있도록 전국의 종인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 문화부 -

1976년 5월 17일 재일본청송심씨종회 결성대회 시 화목한 심문(沈門)의 모습들 ...



在日本靑松沈氏宗會 結成大會 會議場所 (京都 PARK HOTEL)



式 順



在日本靑松沈氏宗會 結成大會 會議場 入口



左로부터 副會長 載根 大業 相賢, 會長 相助, 顧問 宜燦, 監査 漢植

◆ 재일본(在日本)청송심씨종회 종원의 헌성금을 내주신 명단

1. 사세조(四世祖) 악은공(岳隱公) 휘(諱) 원부(元符) 선조(先祖)의 경의재(景義齋) 창건(創建) 시

의찬(宜燦) 상현(相賢) 광섭(廣燮) 상조(相助) 상호(相祐) 기수(起洙) 재갑(載甲) 성업(聖燁) 기수(起洙) 점수(點守) 상화(相和) 사섭(史燮) 재인(載寅) 광택(廣澤) 종하(宗河) 상구(相球) 윤섭(潤燮) 종업(鍾燁) 상만(相滿) 장상길(張相吉) 외(孫)

* 경의재 창건 비용 72,057,735원 중 거의 50%에 해당하는 30,530,000원을 재일본종회에서 헌성하였으며,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정기총회 시

수관(壽官) 종하(鍾河) 재출(載出) 재명(載明) 도식(道植) 재돈(在遁) 운섭(雲燮) 진섭(珍燮) 상수(相洙) 훈종(勳鍾) 삼구(三求) 상만(相萬) 병식(炳植) 외 다수(多數) 종인이 참여하였습니다.



理事 在豚, 理事 潤燮



名譽會長 壽官, 總務部長 貞輔, 顧問 宜燦



(名古屋) 在, 理事 準燮, 監査 漢植, (東京) 圭燮



講演 壽官



기제사(忌祭祀) 지내는 날짜와 시간

기제사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을 따르기 때문에 “가가례(家家禮)”라는 말이 있듯이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반드시 옳고 그르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항임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제사의 날짜와 시간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기제사(忌祭祀)라는 말은 조상께서 돌아가신 날인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② 기제사 지내는 날짜와 시간

기제사는 돌아가신 날(별세하신 날) 지내는 것이나 조선조까지는 12간지(干支)로 시간을 사용(2시간씩을 묶어서 시간을 표시) 했기 때문에 새날이 시작되는 시간을 자시(子時 : 밤11시~새벽1시)로 보고 별세하신 전날 밤 11시에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으나 어느 선유(先儒)도 제사 시간을 자시로 계시한 바는 없습니다. 엄격히 시간을 따지면 밤 12시가 지나야 “돌아가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간지로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서력(西曆)과 24시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일 전날 저녁에 한데모여 음식준비를 갖추었

다가 밤11시가 되면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하여 자정(밤12시)부터 기제를 올리는 것이 「돌아가신 날 제사를 드린다」는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선대조님이 돌아가신 날, 제일 먼저 조상님을 생각하고 다른 일에 우선하여 맑은 정신으로 조용한 미명(未明)의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올리는 것이 효자의 효심이라 하겠습니다.

③ 별세한 전일(前日)저녁시간(밤7시~10시)대에 지내는 경우

돌아가신 전날 제사음식을 준비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신 전날을 제삿날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돌아가신 날이 제삿날입니다. 간혹 전날 저녁시간에 제사를 올리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여러 사정상 자정(子正)에 기제를 지낼 수 없을 경우는 돌아가신 날 저녁시간(밤7시~10시)에 지내는 것이 옳습니다.

④ 최근의 실제상황

예법으로 보면 자정에 기제사를 올려야 맞지만 오늘날과 같은 핵가족 사회구조와 생활 여건에서 볼 때 자정에 다수참가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음날 출근과 사회활동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례준칙에 의하면 “기제사는 별세한 날 일몰 후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때라 하면 사업하시는 분이 나 직장인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며 제관(祭官)들이 모이기 좋은 시간인 저녁 8시~9시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기일 저녁에 기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⑤ 종회주관으로 기제사를 올리는 경우

기신제의 시간 (자정)을 지키기가 어려운 여건이라면 다수가 참석하고 제관들이 모이기 쉬운 저녁시간 밤 8시나 9시로 행사(行祀) 시간을 기일(忌日) 저녁시간으로 과감하게 바꾸는 것도 현실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제사의 본뜻이 오늘에 내가 있게 해주신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조상님을 섬기는 정성에 있음으로 그러한 마음자세로 제(祭)를 올린다면 조상님께 대한 결례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⑥ 제사일에 관한 기타 상식

- 1) 돌아가신 날이 음력 2월30일인 경우
예 : 2012년 음력2월29일이 말일(末日)일 경우 해당 날짜가 없다고 하여 제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음으로 기일이 2월30일이라 해도 말일인 29일 올려야 합니다.
- 2) 돌아가신 날이 윤달에 속한 경우
해당 윤달이 없는 해에는 평달의 그 음력일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2011년 7월 1일

재무/문화이사 載 緒

沈영감 심민섭



제13대 명종(明宗)비

仁順王后 沈씨(1532~1575)

◎ 王位를 방계(傍系)로 승계시킨 심씨

明宗의 후비(后妃) 인순왕후 심씨는 영동녕부사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 청송심씨 심강(沈綱)과 어머니 전주이씨 사이에서 큰 딸로 1532년(중종27) 5월에 태어났다.

심씨는 12세 때 두 살 아래의 경원대군과 가례를 올려 부부인(府夫人)이 된 2년 후 1545년 6월 仁宗이 승하하고 명종대왕이 왕위에 오르자 14세에 왕비로 책봉 되었다. 그러나 막강한 시어머니 문정왕후의 섭정 아래에서 오금을 못 쓰고 조신해야 했다.

모후(母后)인 문정왕후가 섭정하는 동안에는 윤원형 등의 외척 세력이 국사를 전횡하며, 임금인 명종은 모후에게 매를 맞는 처지였으므로 허수아비 임금으로 지내다가 명종이 20세가 된 1553년(명종8) 모후가 섭정을 거두면서 친정(親政)이 시작 되었다. 명종이 친정을 시작해도 윤원형의 외척 세력이 너무 비대함에 이를 견제하고자 중전 심씨의 외숙인 이랑 등을 중용하고 인재 고루 등용했으나, 그 또한 파당을 지어 자기 세력을 키우며 뇌물을 거두느라 여념이 없자, 정치는 극도로 문란해지고 파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조정 대신들은 권력을 독점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사회는 어수선한 판국에 흥년까지 들어 백성들 태반이 굶주림에 시달렸고 부패 관리들의 착취 횡포는 극심하였다.

백성의 길을 전세 낸 것처럼 가마꾼들이 둘러싼 사인교(四人轎) 가마 위에서 대감은 거드름을 피우고, 백성들은 맨땅에 엎드려

절하고, 도대체 백성을 위한것인지, 대감을 위한것인지, 짧고 굵지 않은 눈길의 임궽정(林巨正)의 무식한 소견으로는 헛갈리기만 했다.

“저 자가 가마 타는 즐거움만 알았지, 가마 메는 고통을 아는가? 역지사지(易地思之), 처지 바꾸어 생각해야지”. 사회는 온통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백성은 학정과 수탈에 시달리는 난장판에 양주(楊洲)의 백정 출신 임궽정이 마침내 도둑질을 시작했다. ‘바늘도둑 소도둑’ 되니 관아의 창고를 털어 백성에게 나눠주었다. 그는 1559년(明宗14)부터 1562년(明宗17)까지 황해·평안·함경·강원·경기도를 누비며 의적 행각을 벌였다.

“나라에 선정이 없으면 교화가 밝지 못하다. 재상이 멋대로 욕심을 채우고 수령이 백성을 학대하여 살을 깎고 뼈를 발리면 고혈(膏血)이 다 말라버린다. 수족을 둘 데가 없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기한(飢寒)이 절박해도 아침과 저녁거리가 없어서 잠시라도 목숨을 잊고자 해서 도둑이 되었다. 그들이 도둑이 된 것은 王政의 잘못이지 그들의 죄가 아니다.”라고 실록(實錄)의 사관(史官)이 평가했다. 임궽정의 의적 행각은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척족(戚族)이 국사를 전횡하고 흥년이 계속된 데다가 관리들의 수탈이 횡행하는 틈을 탄 것이었다. 임궽정이 나라를 뒤흔들며 소동을 일으키자 조종에서는 토포사(討捕使)들과 전 병력을 동원해 3년 만인 1562년(명종17) 정월에 임궽정

을 체포하여 보름 만에 처형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사는 혼미해서 헤어나지 못한 채 명종의 모후 문정왕후는 동생 윤원형을 앞세워 조정을 좌지우지함에 사실상 섭정(攝政) 기간이 연장되고 있었다. 명종과 인순왕후 심씨가 모후에게 짓눌려 지내던 중 1565년(명종20) 4월 마침내 문정왕후가 65세로 세상을 떠나자 명종은 보우와 윤원형을 제거하고 조종에 사립파를 등용하는 등 개혁 정치에 착수했다.

그러나 명종과 심씨 사이에는 보위를 이을 후사(後嗣)가 없었다. 심씨는1551년(명종 6)에 순회세자(順懷世子)를 낳았으나 그는 1563년(명종18) 13세에 요절하였고, 그 후 서른이 넘도록 아들이 없자 심씨는 후사 문제를 할아버지 통원(通源 : 우의정)과 의논한 결과 中宗의 후궁 창빈 안씨의 소생인 덕흥군(德興君) 중종의 일곱째 아들의 셋째 아들인 하성군(河城君)을 明宗이 총애했으므로 양자 후보로 지목하였다.

명종이 한때 위독했을 때 심씨는 하성군을 후사로 삼는다는 전교를 작성하기도 했으나 병석에서 일어나게 된 명종은 어명으로 일축해 버렸다. 명종은 자신의 아들로 후사를 삼고 싶었지만 인순왕후 심씨나 후궁들도 아들을 못 낳자 심씨어 무수리 출신 張씨 까지 가까이 접했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선정을 펴보려 했던 뜻도 이루지 못한 채 1567년(명종22) 6월 보령 34세로 경복궁 양심당(養心堂)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야사에서는 명종의 모후 문정왕후에게 시달림을 받고 무수리 장씨와의 지나친 방사 때문에 졸지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한다. 인순왕후 심씨의 전교에 따라 1567년 6월 양자로 입적된 하성군이 즉위했으나 이가 곧 16세의 선조(宣祖)였다. 이때부터 적장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던 조선의 왕위가

방계로 승계된 것이다.

◎ 권력욕을 자제할 줄 알았던 심씨

심씨가 하성군을 지목한 배경에는 그를 천거하여 권력을 잡으려는 친정의 입김이 작용하였던바, 즉 심씨 친정 덕분에 서자의 아들이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선조를 즉위시킨 심씨는 자신이 문정왕후의 전횡을 겪었으므로 직접 정사에 나서지 않으려고 했으며, 그저 조정에 친정 식구들이 많이 포진한 것으로 만족했다. 심씨는 거둬진 영의정의 요구로 수렴청정을 하였으나, 조정 대신들의 의사를 따를 뿐 자신의 의견은 거의 내놓지 않았다. 다만 친정의 이익을 어느 정도 대변하였지만 국사보다 우선하지는 않았었다.

선조가 정사 처리에 무리가 없고 친정할 능력도 있었기에 즉위 이듬해 1568년(선조 1) 2월 심씨는 청정을 철회했다. 심씨는 사대부들에게 저주의 표적이 되었던 문정왕후의 전횡을 밝히지 않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심씨의 퇴장과 宣祖의 친정은 도화 정치를 주창하던 사립계가 집권 세력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조선 건국 후 150여 년간 정국을 주도한 것이 훈척인 세력이었다면 이후부터는 집권 사립 내부의 대결 양상인 당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수렴청정(垂簾聽政)을 접은 7년 후 1575년(선조8) 1월 인순왕후 심씨는 춘추 44세로 창경궁에서 승하하여 현재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의 강릉(康陵)에 명종과 나란히 묻혔다. 권력의 과욕을 자제하고 아쉬운 시기에 그만둘 줄 아는 지혜로운 왕비 인순왕후 심씨, 그녀는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의 평범한 진리를 몸소 실천한 왕비로 길이 추앙받을 것이다. <끝>

宗 事 消 息

4世祖 靑城伯 墓所 금초

6월 5일(일)



2011년 6월 5일(일) 경기도 연천 靑城伯 墓下一家分 들께서 정성껏 벌조한 4世祖 靑城伯 墓所와 配位 卞韓 國大夫人 仁川門氏氏墓所全景



경기도 연천 4世祖 靑城伯 墓所 금초後 묘하(墓下) 일가분 기념사진촬영(맨앞줄 良燮 有司 어르신) 손자 / 아들 / 할아버지

2011년 6월5일(일) 묘하 일가분들이 모여 조카님 형님 아저씨 대부님 모두 정답게 인사를 나누며 오전6시부터 시작한 금초 작업은 땀으로 흠뻑 젖은 모습들로 오전11시에 끝났다. 정성껏 청성백 할아버님 묘소 벌조후 화목한 모습으로 모인 명분이 자손들의 정다운 모습들, 정말 보기좋은 일가들의 모습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온 청송심씨 제2세조(휘:淵)의 유허지인 경남 합천 삼가의 두산정 재실 수호 보존을 위한 모금운동에 대종회를 비롯한 전국 종인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금운동을 계기로 우리 일가님들이 종파를 가리지 않고 다투어 협조하는 송조정신과 애족정신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며 무한한 감동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가님들의 고귀한 뜻은 돌에 새겨 영구히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게 할 것입니다.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 7월 일

청송심씨 두산정보존회 회장 沈義祚(합천) 부회장 沈東燮(진주) 부회장 沈洙鍾(부산)

◎ 추가 헌성자 명단

200,000원 : 심준덕(합천) 심호택(대구)

100,000원 :

심정섭(대구) 심수성(합천) 심창용(성남) 심광룡(합천) 심길수(진주) 심용우(진주) 심은달(부산)

5世祖 安孝公(휘:溫) 端午節祀 奉行

6월 6일(월) 음5월 5일(단오)



▲初獻官으로 安孝公宗會 相德會長께서 헌잔(獻盞) 亞獻: 相烈 終獻: 錫鎔 執禮: 載玉 大祝: 相弘 執事: 彦村 成鎮 應植 彦璿

6世祖 恭肅公 配位 忌辰祭 奉行

6월 11일(음 5월 10일)



▲亞獻官으로 仁川宗會 相振會長께서 헌잔(獻盞) 初獻: 仁輔(宗孫) 終獻: 良燮(僉正公宗會長) 大祝: 養燮(墓下宗人) 執禮: 載玉(安孝公宗會 總務) 執事: 忠澤 相萬

송금안내

任員會費·贊助金·宗報贊助를 송금 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종회)

인터넷 족보 수단금 송금안내

·농협 301-0019-5484-91 (청송심씨대종회)

수단(收單)은 우편, 팩스(2269-7755) 또는 이메일 : cshimssi@kornet.net로 보내 주시고 수단금은 상기 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문의전화 : (02)2267-7857

공지사항

- 1 2011년 지방순회 뿌리교육은 10월 29일(토) 부산지역총회에서 개최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9월호 종보(제91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2 인터넷족보 신청 접수는 매년 12월에 접수합니다.
3 대종회종보 편집위원은 8월 중에 확정 종보 9월호(제91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4 대종회 회장실로 화분을 보내 주신 공숙공종회 雄燮 회장, 판관공종회 相烈 회장, 법곳종중 載烈 회장께 감사드립니다.
5 종원께서 보내주신 종보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게재합니다.(정치·종교는 제외)
6 지역총회와 파종회에서는 종인들이 종보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派(地域) 宗會旗 製作 申請

2006년부터 우리門中の 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각 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회기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대종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기존의 종회기를 교체하거나
▶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靑松沈氏大宗會(02-2267-7857)

Table with columns: 宗會名, 住所, 電話番號, 제작금액. Includes contact info for 靑松沈氏大宗會.

5처산소 유사 연락처

Table listing branch locations (Se, Gwan, So, Yu, Phone) for 5 branches: 1st, 2nd, 3rd, 4th, and 4th branch (Seo).

Table listing branch locations (Seo, Gwan, So, Yu, Phone) for 4th branch (Seo), 4th branch (Seo), and 4th branch (Seo).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참전 소년·소녀지원병이 왜 나라로부터 푸대접을 받아야만 하는가?



대중회 부회장
沈相殷

6.25 남침전쟁(南侵戰爭)이 발발한지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1950. 6. 25 새벽 4시경 38선 전역에 걸쳐 전개된 전쟁은 북한인민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 수도서울을 개전 불과 3일 만에 빼앗겼다.

한 달 좀 지나 아군(我軍)은 밀리고 밀려 8월초에는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하는 교두보(橋頭堡)를 구축하여 결사적인 저지(阻止)방어에 임하게 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참전자 중에는 병역의무도 없는 14~17세의 소년 학도병들이 선배들의 틈에 끼어 최초 낙동강방어전투시에는 다부동(多富洞)전투, 신령(新寧)전투, 영천(永川)전투, 가산(架山)-팔공산(八公山), 안강, 기계전투, 포항(浦項)전투, 마산(馬山) 서부지역전투 등의 전투지역을 시작으로 1.4후퇴를 전후 한 시기까지의 사이에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전쟁터로 달려가 치열했던 격전지의 여러 현장마다 소년병은 어디에나 다 끼어 소총소대의 분대장, 통신병, 포병, 수색대원, 특공대원, 행정요원 등 각 분야에서 감직한 병정으로 소임을 다해 싸웠다.

특히 소년지원병은 이의 방어 작전 시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던 다부동 전투에서는 주로 특공대와 수색대에 배치되어 많은 기여를 하여 다부동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의 치열한 전투기간 중에 참전한 자의 수는 2009년 말 현재 국방부자료에 의하면 현역복무(제급 군번부여) 6.25참전 소년 소녀지원병 14,400여명 비군인(국방부장관이 참전사실 인정자) 6.25참전 소년 소녀지원병 8,900여명이 참전했다고 한다.

당시의 육군병력은 94,974명으로 1950. 8 공세에 대비 2개 사단을 증설했다 하더라도 10%에 상당하는 소년병의 참전은 병력 충원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어린아동들의 그 용기(勇氣)와 기백(氣魄)의 혼(魂)은 다수의 장병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 낙동강 방어를 위시하여 두 번이나 빼앗겼던 수도서울을 탈환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은 군사학자들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제7대대통령(1767. 3. 15 ~ 1845. 6. 8)인 앤드류잭슨은 변호사이며 법관출신이고 민병대장으로서 전쟁영웅의 칭송을

받았던 잭슨은 “용기 있는 한사람이 다수의 힘을 갖는다.”라는 격언(格言)을 남겼다.

이 격언이야말로 6.25 남침전쟁에 참전한 소년 소녀병들이 자원입대하여 용감무쌍하게 싸운 그 용기와 기백의 혼이 다수의 장병들에게 사기진작의 힘이 되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전설 속에서 전해 내려온 신라의 소년 화랑관장이나 프랑스의 영불 백년전쟁에 참전하여 승리로 이끈 잔다르크는 소녀로써 이들이 전술과 무술에 능했던 것이 아니라 어린나이에 참전한 그 용기와 기백이 다수의 장병들에게 사기를 진작케 하여 승리로 이끌어 온 것이라 여겨진다.

이처럼 소년병의 참전은 당시의 병력자원고갈 현실에서 병력충원(兵力充員)면에서나 장병의 사기진작(士氣振作)을 위한 활력소(活力素)역할을 다 했다고 본다.

이 전쟁 중 피아간 많은 병력손실 중에는 소년병도 어쩔 수없이 어린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한 채 산화(散華)한 전우회에서 파악된 전사자만 도 2,268명이지만 현재 국방부에서 확인 중인 희생자는 약 5,000명 상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역복무 소년병은 30%상당이 전사했다고 본다.

또는 현역복무 6.25참전 소년지원병 중 전사상자(戰死傷者)를 제외하고는 3년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진지(陣地)를 끝까지 사수(死守)하고 살아남아 생존한 소년병은 휴전1.2년 후에 제대를 하였으니 이로 인한 연약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발달에 해를 끼친 것이 희생 중 하나요 또한 한참 배워야 할 면학시기(勉學時期)를 실기(失期) 하였으니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나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도 희생이라 여겨진다.

2008년 말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4,748명의 현역복무 소년병이 생존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편 후 5,000여명은 경제개발 역군으로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하직할 것으로 본다.

아동의 권익보호는 유엔의 유니세프(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의 설립(1946. 12. 11) 정신에 따라 제정된 아동복지법이나 유엔 아동권리협약상 공통점은 아동은 국가와 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교육이 보장되어야 하고, 금지행위로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동조 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2조는 “모든 아동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해서는 안 되며,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으로 말할 나위 없이 兒童(아동) 이 이의 살벌한 전쟁에

참전한 것을 국가가 방치하였다고 함은 반인륜적(反人倫的)이고 반인권적(反人權的)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범국(戰犯國)국으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이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급한 시기에 더구나 병력자원의 고갈인 상황에서 어느 누구 남녀 노소(老少) 가릴 것 없이 온 국민이 몸을 던져 심지어는 병역의무 없는 장년층 노무자들이 최전방에 동원되어 포탄운반·부상자운반·장병들의 식사운반 등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수호라는 명제 앞에 누구나 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할 판에 각계분야에 참전한 그 공과를 따질 수도 없을뿐더러 어찌 이를 탓 하겠는가.

다만 전황(戰況)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인 1951. 2. 28 이승만대통령의 “학도의 용군 및 유격대 등 해산명령”과 동년 3. 16 “중군학생 복교 귀가조치” 특별담화에 따라 계급 군번을 받은 현역복무 소년 소녀병도 의당 예편과 동시 복교조치가 되었어야 하고 따라서 이들의 공훈에 대한 치하와 수훈이 수반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군인(학도의용군·유격대 등)만 해제되어 복교 또는 귀가 조치되고 근로 동원된 근로자들도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그러나 현역복무 소년병은 이의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3년 전쟁을 다 치르고도 1~2년 후에 예편되었다.

예편한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이들의 영웅심에 대한 수훈은커녕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소년 소녀지원병의 참전에 대한 격려와 치하 한마디 없는 실정이다.

그 뿐인가 이들이 나라에 대한 공훈과 희생 한데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와 지원을 하여 달라는 관계 법안을 제16대국회(김대중 정권)에서는 2001. 2. 12 안경률 의원이 제17대국회(노무현 정권)에서는 2004. 12. 23 장윤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상정하였으나 흔 싹 짙 버리듯 외면을 당한 채 폐기 되고 말았고 현 제18대국회(이명박 정권)에서는 2008. 6. 25 김소남 의원이 대표 발의 하여 현재 정무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3년이 다 되도록 심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개정 법률안이야말로 60년 전 어린 아동들의 나라에 대한 공훈과 희생을 다룬 고귀한 법안으로 어찌 민생법안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민생법안에 밀려 그대로 외면 당 하고 있는 법안이 되고 말았다. 전술한바와 같이 제16대국회(김대중 정권)와 제17대국회(노무현 정권)에 두 번에 걸쳐 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달라는 법안은 소년병의 명예회복은커녕 헌신처럼 버려진 채 폐기되고 소년병의 실

체마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9년 말에야 비로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책임질 국방부로부터 현역복무(現役服務) 6.25 참전 소년 소녀지원병으로 실체를 인정받고 전사(戰史)에 수록 중인데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 주관부서인 국가보훈처는 소년병은 어린나이에 참전한 것은 인정하지만 보훈보상은 “신체적 희생이나 특별한 공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년병은 이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심한 자들이다.

국가보훈처는 진실로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자를 찾아 보훈선양 하여야 함은 물론 이의 애국정신을 자라나는 어린아희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여 미래가 밝아 오도록 해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지정남발로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 취소조치 된 예나 수 일전 매스컴에 의하면 북한에서 밀봉교육을 받은 간첩인 재일학도의용군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2006년부터 보상금지급을 했다는 등 보훈행정에 불미스러운 오점을 남긴 처사를 보더라도 국가보훈처가 과연 나라를 위해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병은 병역의무도 없고 국내외법상 아동의 보호를 위해 금지하는 반인권(反人權) 반인륜(反人倫)을 넘어 살벌한 전쟁터에 몸을 던진 소년병의 참전이 어찌 국가에 대한 희생이나 또는 특별한 공훈이 아니라 말인가.

또한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은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로서 월 120만 원상당의 보상금을 받고 있어 법적용의 형평성 의당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 소녀병에 대하여도 전자와 동등하게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만인에게 공통으로 적용 할 법을 무시한 채 소년병은 신체적 희생이나 특별한 공훈이 없다하여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등 공정성에 반한 논리로 국가보훈처는 제16대국회 때부터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6.25남침 전쟁에 참전한 자 중 마지막 세대인 소년병도 70대 말(76~78세)에 들어서면서 하루가 다르게 기력소진현상으로 많은 회원들이 병고(病苦)에 시달리고 있거나 세상을 뜨는 회원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6.25참전 소년 소녀지원병의 소망이 있다면 현재 제18대국회에 상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86호)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고 소년 소녀병의 참전을 기념하는 조형물과 순국소년병의 얼을 기리기 위한 충훈탑을 세워 후손들에게 송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1. 6. 1

6.25참전 소년 소녀지원병전우회
부회장 심 상 은

화전등(花田燈)에 올라



沈相欽

“심선생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소?”

“예, 보고 있습니다.”

밤10시쯤 된 시각이었다. 선양회(宣揚會) 회장님께서 온 전화였다. 보통 때 같으면 영화나 오락물을 즐겼겠지만 요즘 들어 의병(義兵)과 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에 관심이 커진지라 마침 의미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었다.

2011 올해가 경술국치(庚戌國恥)가 백년에 한해를 더한 백 일년에 이르렀다. 요즘 들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의병선열과 광복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독립투사들의 삶의 여정이 ‘국치(國恥)100년 시리즈’의 즐거리로 TV로 방송되고 있다. 국모(國母)가 시해된 을미사변(乙未事變), 단발령으로 선비의 한 가닥 마지막 자존심까지 유린한 일제들. 전국 여러 곳에서 의병들이 창의(倡義)하여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 한 조상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표현인 한일합방(韓日合邦)에 이르고 말았다. 국내에서 일제의 압박을 견디며 항일운동을 전개한 사람들. 압제를 피해 만주 허허벌판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 언 땅을 갈아엎으며 근근이 연명(延命)하면서도 잃어버린 나라를 찾으려 애썼던 사람들, 많은 악조건에서도 광복을 생각하고 불철주야 행동했던 사람들! 이 땅의 선구자, 독립을 갈구하며 실천했던 사람들은 그 동토(凍土)의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섰을까?

저 언덕이 화전등이다. 학교에 출근하기 위해서 매일 내왕하던 이 길 위 언덕에서 웅장한 사당의 일부가 건축되는 것을 보고 뭔가 뜻있는 사업이 이루어짐을 생각했다. 그 돌아가는 모퉁이 길가에 지금은 ‘항일의병 기념공원’으로 선명한 글씨의 표시석이 서 있다.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언덕 위를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숨 가쁘게 올랐다. 1896년 병신년에 청송에서 창의한 항일의병(抗日義兵)의 성역지다. 구한말에는 일제의 조선 침탈에 맞서 창의한 의병들이 여러 곳에서 전투를 벌였다. 청송의병들은 인근 안동의진과 영덕의진 경주의진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러 전투에서 승, 패가 교차되었다. 이곳 꽃밭(花田)등 전투에서는 6명의 의병이 장렬히 순국하신 유서 깊은 곳이다.

그 언덕위에 한말 전국의병의 위패를 모신 전국(全國)에 단 하나 뿐인 항일의병 기념공원이다. 1997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많은 난관을 거쳐서 올해 2011년 6월 2일에야 비로서 경상북도 도지사, 전국유관기관장, 유족대표, 지방유림, 지방주민, 선양회 회원들이 모여 개관식을 거행했다.

의병이란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급할 때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민중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외적에 대항하여 싸우는 구국 민병이다. 대한제국시대의 외세에 대한 항거는 성리학(性理學)인 전통사회에서 그 이단(異端)인 외래문물의 사학(邪學)을 배척하고 정학(正學)으로서의 유학을 지킨다는 척사위정(斥邪衛正) 사상이 원류(源流)가 되어 왜(倭)와 양(洋)을 일치시킨 배외양척화론(排倭洋斥和論)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2만 여 평의 공원 내 맨 위쪽에는 항일의병 선열 1927위의 위패를 모신 충의사(忠毅祠)가 있다. 7칸 겹집의 전통한옥으로 100여 제곱미터 남짓한 실내에는 위패를 모셨다. 출신도별로 성함은 가나다순으로 배치되어있다.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충의사에 배향하고 문을 나서니 의병선열의 고결한 뜻이 몸에 밴 것 같아 마음이 한결 넓어지는 것 같았다.

충의사 아래는 서재(西齋)로 효제충신제가 있어 이는 유교문화의 미풍양속이면서 선비정신의 덕목인 효도 우애 충성 신의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며 동제(同齋)로 인의예지제가 있어 이는 유교의 인·의·예·지를 편액으로 걸었다.

의병기념관을 둘러보기 전에 건물 뒤편의 거대한 화강석

에 새겨진 명각대(名刻臺)에는 한말의병으로서 서훈 서열을 받으신 1927위의 영령들 전체의 찬란한 성함이 새겨져 있다.

명각대 왼쪽의 의병정신 선양 헌장 비에는 “의병정신(義兵精神)은 대한민국의 정통정신 문화를 대표하는 국민정신이다. 조국광복을 위한 독립운동정신의 모태(母胎)정신이다. 광복 후에는 정의수호(正義守護)를 위한 민주화정신으로 이어졌으며 이웃열강과 영토야욕과 역사왜곡에 대처할 시대정신이다. 분단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계승되어야 미래정신(未來精神)이다.”라는 글이 새겨져 선조들의 의병정신을 널리 펴고 후진들을 이끌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면의 큰 건물은 의병기념관(義兵紀念館)이다. 전면 칸 측면 3칸 겹집인 의병기념관은 300여 제곱미터의 실내에 한일의병의 효시가 된 임진왜란부터 한말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사실과 의병활동 관련 문서, 청송지역 의병활동 사실 등을 전시하고 있다. 해를 넘겨 닦은 터에 정교하게 다듬어진 주조석도 크러니와 백년 넘은 노송들이 어디에서 베어왔는가! 튼실하고 대패질로 우람한 기둥이 압도하고 있다.

하늘이 있어 땅이 있고 땅이 있어 사람이 있듯이 나라가 있어 국민이 있고 부모가 있어 내가 있거늘 이 같은 우주만물과 자연의 섭리를 어찌 누가 거역하라 나라 없는 국민으로 한세상 36년 살아보지 않고서야 나라의 소중함과 그 설움을 어찌 알 수 있으리오 나라 잃고 억울하여

하루도 어려운데 24일 단식하여 순국하니 3대 이은 독립운동 그런 가문 있다하니.....

의병 기념관 상량문(上梁文)을 읽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칠월초의 이른 더위라고는 하지만 하늘은 맑고 푸르고 깊었다.

의병기념관 옆에 있는 집회, 강의동인 창의루까지 둘러보고 광장에 나서니 전망을 보니 국립공원 주왕산의 산세가 웅장하게 앞에 펼쳐져 있어 가슴을 후련하게 하며 산을 감싸는 자색 정기가 기념공원 까지 뻗쳐지고 있었다. 공원 앞에 넓게 펼쳐진 마평 들판의 향기로운 풀 냄새가 의병기념관까지 퍼져 올라와 코를 아른하게 하였다.

청송의병기념공원을 찾아보고 병신창의 청송의병의 역사를 알고 나면 청송심씨의 자손으로서 가슴 뿌듯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된다.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이후 국왕 고종의 애통소가 전국 각지에 전해져 의병이 창의했고 청송지방에도 전해졌다. 청송에서도 양반과 유생들은 향교를 중심으로 향회를 소집하는 등 창의를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1896년 3월 12일에 소류 심성지(沈誠之)를 대장(大將)으로 하여 창의를 하였다. 평소 학문에만 정진해 오셨으나 인품과 덕망 그리고 용기를 두루 겸비한 선생이었다. 왜적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는 의병정신으로 소류 선생은 청송의병의 감은리 전투등 85일간의 의병활동을 지휘하였다.

소류선생의 저술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강병론(強兵論)과 소류공이 군영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읊은 시 영아음(營夜吟)은 후손에게 전해져 소류선생의 애국충정과 실리를 멀리하고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하는 참선비로서의 깊은 사상을 증명해 주고 있다. 청송의병의 활약상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역사적 기록으로 알게 된 것은 적원일기(赤猿日記)가 발견되고부터이다. 이 일기는 병신창의시 의병대장이신 소류 심성지 대장의 현손(玄孫)인 봉섭(鳳燮)씨가 소장하고 있었던 것을 비로서 세상에 공개되면서 당시의 역사적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는 이충무공의 난중일기(亂中日記)와 류문충공 서애선생의 징비록(懲毖錄)과 임진왜란 당시 의성지방 의진에서 작성한 정만록(征蠻錄)등이 대표적인 것이며 구한말 전국 수백 의진들의 일기는 그 기록을 찾아 볼 수가 없어 청송의진(靑松義陣)의 적원일기가 전국에서 유일본이라 할 수 있다. 병신창의 청송의진 총 82명중에서 우리 문중에서 16명이 가담하고 있어 함안조씨 가문과 아울러 가장 많은 문중 선비들이 국권을 수호하기위한 싸움을 하였음은 후손으로서 감동적이고 가슴 뿌듯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바른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은 대다수 성인들의 염려지사이다. TV채널만 돌리면 매일 쏟아지는 폭력물과 연예 오락물. 청소년들은 노출된 폭력을 별 무리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일시의 대상으로, 그들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을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 책임을 지겠다는 시민단체도 정부기관도 없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사회 여론도 ‘예술의 표현 자유’라는 그들의 방어적 논리에 막혀 무색해 지고 만다. 개인의 생애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아 갈 일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列強)들의 야욕을 알지 못하고 또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잊고 사는 이들이 많다. 나부터 그랬다. 현실을 잘 통찰(洞察)하지 못하니 무사안일이다. 조금 살만하니까 불감증(不感症)에 걸리고 만 것이다.

우리민족의 자존심이요 삶의 뿌리인 효(孝)와 예절(禮節)은 땅에 떨어져 폭풍후의 나뭇잎 같이 이리저리 보도 위를 나뒹굴고 있다. 해마다 증가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범죄는 흉포화 집단화되고 있다. 우리시대의 미래정신(未來精神)으로서 분단(分斷)된 조국의 통일이념을 바르게 세우고 사회통합(社會統合)을 이루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족이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참 정신은 무엇인가? 청소년에게 바른 정신교육과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 국민정신교육(國民精神教育)의 현 주소는 무엇인가!

전국에서 독립유공 선열을 가장 많이 배출한 안동시와 안동독립기념관, 영덕군과 신돌석장군 성역지, 청송군과 청송군의 항일의병기념공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현충보훈(顯忠報勳) 성역지(聖域地)이다. 이 보훈 벨트로서 전 국민에게 정신적인 뿌리가 되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들에게 의병정신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어 국민정신교육의 근간(根幹)이 되고 도장(道場)이 되어야 함을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11년 7월 1일

▶심상흥(沈相欽) 약력

청송군 월정, 파천, 도평초등학교 교장 역임
한국문인협회 청송지부 회장 역임
경북교원 한국화연구회(묵연회)회장



의병기념관 개관 기념식 광경 (2011년 6월 2일)

조선시대 9대만석꾼 청송 심부자집 「송소고택」 “2011년도 한국관광의 별” 수상



△ 송소고택(松韶古宅) 전경

조선시대 경주 최부자와 함께 영남의 대부호로 명성을 떨쳤던 청송 심부자(沈富者) 9대 만석꾼집으로 유명한 우리 청송심문의 대표적 집성촌(集成村) 마을인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에 소재한 국가지정중요민속자료 제250호로 지정된 『송소고택(松韶古宅)』이 지난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한 2011년도 대한민국 관광분야(체험형숙박부문) 최고의 상을 뽑는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지난 2003년도 우리나라 최초로 고택체험시설로 도

시인들에게 개방한 이 집은 조선 영조때 만석의 부를 누린 심처대의 7세손인 송소공 심호택(沈琥澤)이 파천면 지경리 호박골에서 조상의 본거지인 덕천마을로 이거하면서 지은 아흔아홉칸(99칸) 집으로 지난 1880년 경에 건립하였으며, 현존하는 아흔아홉칸 집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불과 몇 안되는 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하여 고택체험시설로 주말마다 내·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자료제공 : 청송군청 심남규〉

동곡묵적(東谷墨跡)

달빛꽃빛
아내의 환한 웃음 더 좋구나
바둑소리 종다마는
아이의 클소리만 못하다
한결같이 부지런애
이 세상일 어렵지 않구나
온갖 일에 참고 집고
웃음꽃이 가득하네
을유년명촌에 동곡이 적다

△ 달빛꽃빛

동곡 심우경(東谷 沈愚慶) 선생은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여가를 선용하여 꾸준히 연마해 온 서예작품을 모아 2011년 5월 “동곡묵적(東谷墨跡)”을 발간하였다.

동곡은 1937년 3월 30일 전남 곡성군 입면 금산리 택촌에서 준식(駿植)공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어려서 조부 성구(聖求)공에게 천자문과 운필(運筆)을 배우고 14세에는 소학(小學)을 배웠다. 16세에는 노천 김종윤(蘆泉 金鍾胤) 선생에게서 대학(大學) 중용(中庸) 논어(論語)와 한자서법(漢字書法)을 수학하였다.

화순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역을 필한 후 29세에 농촌지도직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전남도내 각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면서 식량증산에 힘써오다 1996년 6월 30일 정년퇴임하였다.

47세 때에는 동곡서예교실을 개원하였고 이듬해에 광주경북회(光州耕務墨會) 창립회원이 되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각종 서예전에 다양한 서체의 작품을 출품하여 다수의 입선과 특선을 하였고 20여년간 수많은 문중의 비문을 짓고 쓰면서 광주지역에서 이름을 떨쳤다.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이 오히려 두렵기만 하고 미흡한 마음 금할 길 없으며, 문화와 예술을 중시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그 동안의 각고를 감내하면서 연마하였던 미숙한 졸작들을 한데 모아 감히 동곡묵적(東谷墨跡)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人事

成輔 : DBS(싱가폴 산업은행)서울지점 영업이사 (대중회 載緒 재무/文化理事의長男)
재설 :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 연구부장
원보 : 건양대 교무처장겸 유일화학학과 운영책임관
상희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욱기 : 국세청 초임세무서장
은석 : 경찰청 경비교통과장
진환 : 기업은행 부평동 지점장
광섭 : 기업은행 Pre-CEO

康主簿公 獻誠金

安城宗會 100,000

任 員 會 費

宜洛	2011	1,000,000	회장님
庚周	2011	300,000	부회장
相股	2011	300,000	부회장
載烈	2011	200,000	감사
光澤	2011	50,000	안성
相貴	2011	50,000	정읍
敏變	2011	50,000	원주
興變	2011	50,000	청주
載洪	2011	50,000	송파
仲變	2011	50,000	부여
載榮	2011	50,000	부산

宗 報 誠 金

馬山宗中	300,000	
正郎公宗會	100,000	
龍變	50,000	인천
재강	50,000	완도
정철	50,000	정읍
彦村	100,000	수원
有變	100,000	중앙웨딩홀
상만	50,000	완주
東變	20,000	홍성
흥구	100,000	용인

★ 회비 및 증보성금에 감사드립니다.

譜事관련 두 가지 以上の 音을 가진 漢字

字	訓	音	用 例
奈	어찌	내	내하(奈何)
	나락	나	나락(奈落)
茶	차	다	다과(茶菓)
	차	차	차례(茶禮)
度	법도	도	제도(制度)
	헤아릴	탁	탁지(度地)
讀	읽을	독	독서(讀書)
	구절	두	구두점(句讀點)
洞	마을	동	동리(洞里)
	통할	통	통찰(洞察)
屯	진칠	둔	둔영(屯營)
	어려울	준	준험(屯險)
率	비율	률	능률(能率)
	거느릴	솔	통솔(統率)
復	회복할	복	복구(復舊)
	다시	부	부활(復活)
否	아니	부	부결(否決)
	막힐	비	비운(否運)
北	북녘	북	남북(南北)
	달아날	배	패배(敗北)
樂	즐길	락	고락(苦樂)
	풍유	악	음악(音樂)
不	좋아할	요	요산(樂酸)
	아닐	불	불량(不良)
惡	아닐	부	부도(不到)
	악할	악	선악(善惡)
屬	미워할	오	증오(憎惡)
	붙일	속	속국(屬國)
數	이을	촉	촉망(屬望)
	셀	수	수학(數學)
拾	자주	삭	삭삭(數數)
	주을	습	습득(拾得)
識	열	십	삼십(參拾)
	알	식	지식(知識)
閒	기록할	지	표지(標識)
	틈	간	간첩(閒諜)
閒	한가할	한	한직(閒職)

꽃 삼

시조시인 심성보
부경대 명예교수

눈 녹은 시냇물이
두보(杜甫)로 걸어오고
노루목 돌던 춘풍
망울 앵두 터뜨리나.
애들아 꽃삼 챙겨 오너라
재잘재잘 몸비온다.

봄 맞이

심 황 섭

눈 녹은 골짜기에
물은 흐르는데
아직도 가슴속에 잔설은 남았다.
마음에 남겨 두었던 일들
하나하나 풀어주는 봄
작년 모습 그대로 오누나
도란도란 수근대는 겨울에 이야기
또 가슴에 물어두고
새봄을 맞는다.